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도록 하라"(롬 12장 2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악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복음화된 통일조국 복음화된 통일조국은 교회갱신으로부터 시작"

시온성 대행진 모든준비 완료 카운트다운

「오직 말씀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의
행동원리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돌
리기 위한」 시온성대행진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6월 6일(화) 새벽5시 정각 시작되는 「시온
성 대행진」은 20일까지 15일간 본당에서
개최된다.

위임 이종윤목사의 특별메시지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악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임을 전제하
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은 교회갱신으로
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한국 교회
와 사회에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는 기폭제
가 될 수 있기를」 강조했다.

우리 충현교회만의 영적 각성운동을 탈피
한 한국교회 전체의 교회갱신과 민족복음화
차원의 위기극복의 특별성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온성대행진 참모부(참모장:
오태희장로)는 6월1일부터 참모 38명 전원이
새벽기도회 참석이후 연속참모회의를 개최하
고 있으며, 기획, 행정, 동원, 행사, 홍보,
봉사 등의 모든 계획 등을 수립하고 실천여부
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5월 25일 오후7시에 시온성대행진
지휘관 임명식, 그리고 6월4일 오후5시에는
본당에서 준비기도회를 갖는다.

우기전 부참모장 사회로 제1부 설명회에서

김성윤목사(봉사참모)의 기도, 참모장 오태희
장로의 시온성대행진 개요설명, 그리고 동원
계획에 대해서 김학진목사(동원참모)가, 행사
진행에 대하여 강은원장로(행사참모)가, 봉사
활동에 대하여 문홍구장로(봉사참모)의 구체

적인 설명이 있게 된다.

설명회가 끝난 후 부참모장 윤용규목사
인도로 준비기도회를 갖는다.

이 자리엔 각교구별 지휘관(임명받은) 전원
이 참석한다.

"눈물의 성회" 3일간 12~14일 오후7시 본당에서

시온성대행진 기간중 6월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눈물의 성회 집회가 열린다.

오후7시부터 개최될 동 성회의 주제는
「거듭난 인간」(이상근목사), 성숙한 신자
(김명혁목사),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한빈장로)이며, 첫날 사회와
기도는 윤용규목사, 오태희장로, 특순은 대학
부 NMC, 둘째날은 이원길목사, 윤명식장
로, 청년부 병원전도단, 그리고 셋째날은
김익경목사, 오정현장로, 크로마하프합주단이
특순을 맡는다.

교계일간지 기자회견 시온성대행진 설명회

시온성대행진 출발 호기를 불면서 총사령
관 이종윤위임목사는 교계 및 일간 신문,
방송 기자들과 특별회견을 가졌다.

지난 5월 26일(금) 오전11시에 국내 6개
교계 신문사 및 2개 방송국 편집국장 및 편집

국장과의 회견이 있었으며, 5월 29일(월)
오후6시에 일간신문 및 KBS, MBC 기자와의
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종윤 위임목사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쉬임없는 기도의 능력으로만

시온의 백성들은 이 행진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을 선포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은 교회
갱신에 있음」을 특별히 강조했다.

참석한 기자들은 한결같이 「시온성대행
진」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한국교회의 대표격
인 충현교회가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한국교
회 갱신에 영적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음에
큰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부속병원 환자전도 에스터 14지회에서

에스터 14지회(회장: 이혜숙)는 매월 2회
씩 전회원이 용산에 소재한 중대부속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에게 전도하는 한편 가제집
는 일 등의 봉사를 펴오고 있다.

카메라초점



▲ 지난 5월 27일 가진 경로회잔치 모습



▲ 시온성대행진을 위한 기자회견 모습

교회학교 그림그리기 · 글짓기대회 6월 6일 오전10시30분 본당

시온성대행진 행사 참모부는 6월6일(화)
오전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충현교회 본당
에서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
부 대상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와 글짓기대
회를 개최한다.

대회에 앞서 1부 예배는 윤용규목사(교육
위 지도) 사회로 오태희장로(참모장)의 기
도, 이종윤목사(사령관)의 말씀이 있다.

이날 진행방법은 그리기와 글짓기 자유로
선택하여 참가하되 유치부는 그림그리기만
한다.

유년, 초등, 소년 각부별로 그리기와 글짓
기 두 분야별로 시상하고, 유치부는 그리기를
꽃반, 열매반 두 부로 나누어 시상한다.

시상종목은 최우수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4명, 입선 5명에게 주되 전체 참가
어린이 중에서 대상(시온상)을 그리기와 글짓

기 각 분야별 1명씩 시상하도록 하고 있다.

대회 당일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간식
을 제공하며, 시상된 작품은 적절한 장소에
전시할 예정이다.

**여전도회 특강개최 9일,
"가족갈등과 신앙" 주제로**
여전도회 협의회는 오는 6월9일 오전10
시30분 갈릴리움에서 제3회 여전도회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가족 갈등과 신앙」이며 강사
는 이진태목사(본교회 협동목사)이다.

사무국 직원모집

본교회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① 신문, 도서편집자(유경협자) 약간명

② 음향기술자(악전전공자) 약간명

자 격 / 세례교인으로 신앙이篤실한 분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사진첨부) 1통

교인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제 출 처 / 본교회 사무국(소석관 101호)

충현교회

교회갱신과 민족복음화위한 「시온성대행진」

행사개요

▲목 적	충현교회는 흥해작전과 여러교 작전을 통하여 영적 각성과 예수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복음화된 통일 조국으로 이는 교회 갱신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시온성 대행진을 전개한다.
▲표 어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주 제	교회갱신과 민족복음화
▲주제찬송	248장(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실시기간	1989. 6. 6(화) 새벽-6. 20(화) 새벽(15일간)
▲실시장소	충현교회 본당 및 부속건물

행사안내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5시~5시 45분	본 당
그림그리기대회(치·유·초·소)	6월 6일(화) 오전10시30분	본당 앞뜰
글짓기대회(치·유·초·소)	6월 6일(화) 오전10시30분	본당 앞뜰
금식일 선포	6월16일(금)	※해있는 동안 천교인 금식
충진군의 날	6월11일 주일 낮예배 및 집회	각부 교회학교
	6월18일 주일낮 1~4부 예배	천교인

예배안내

예 배 당	일 시	장 소	비 고
지휘관 임명식	5월 28일(주일) 저녁예배시	본 당	시온성대행진 참모 지휘관 임명
준비기도회	6월 4일(주일) 오후 5시	본 당	시온성대행진 지휘관 전원
출 정 예 배	6월 4일(주일) 저녁예배시	본 당	전 교 인
승전감사예배	6월 25일(주일) 저녁예배시	본 당	전 교 인

눈물의 성회

일 시	강 사	주 제	사 회	기 도	특 순
6월 12일(월) 7시	이성근목사	거듭난 인간	윤용규목사	오태희장로	대학부 NMC
6월 13일(화) 7시	김명복목사	성숙한 신자	이원길목사	윤명식장로	청년부 병원전도단
6월 14일(수) 7시	이현빈장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김익경목사	오정환장로	크로마하프 합주단

기도제목

시온성대행진 기간중 집중적으로 기도할 1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제목 7가제가 선정되었다. 베루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시온성대행진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

교회와 민족위한 임진각 기도회

「시온성대행진」은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건만 단해전 북녘땅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두고 온 산하, 헤어진 부모형제,
허물어진 교회가 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복음으로 민족에 하나되기 위하여 기도
하실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 기도회 안내 □

일시 / 1989년 6월 13일(화) 오전10시30분(교회출발)
장소 / 임진각 자유의 다리 앞
강사 / 이종윤 목사
유의사항 / ① 신청은 2교구 사무실로(차량준비 관계로 6월 11일(주일)까지 선착순 50
0명 접수가능)
② 교통비: 1인당 2만원(신청지 납부해람)
③ 당일 점심은 2교구가 제공합니다.
주최 / 시온성대행진 본부
주관 / 제2교구(교구장: 김원선 장로) 지도·감독: 김복진목사, 김주아전도사

서.

- ② 피로 사신 충현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책임있는 교회로서
교육과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 ③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이종윤 위임목사
와 김창원 원로목사 그리고 모든 교역자
들과 장로들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사역
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 ④ 충현의 성도마다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가 되고 몸되신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소서.
- ⑤ 한국교회에 영적 각성과 참된 부흥을
허락하셔서 이 민족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로 갱신하게 하소서.
- ⑥ 이 민족의 불신과 불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 ⑦ 복음화된 통일 조국과 세계 선교의 비전
과 헌신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에 동참하는 이 민족이 되고 이 시대에
향도적 책임을 다하는 충현교회 되게
하소서.

편성 및 조직

- ① 개성행진대(1교구)
- ② 해주행진대(2교구)
- ③ 사리원행진대(3교구)
- ④ 황주행진대(4교구)
- ⑤ 진남포행진대(5교구)
- ⑥ 평양행진대(6교구)
- ⑦ 선천행진대(7교구)
- ⑧ 신의주행진대(8교구)
- ⑨ 중강행진대(9교구)
- ⑩ 원산행진대(10교구)
- ⑪ 함흥행진대(11교구)
- ⑫ 청진행진대(12교구)
- ⑬ 회령행진대(13교구)
- ⑭ 온성행진대(14교구)

- ① 행진 감독(교구교역자)
- ② 행진대장(교구장, 지역장 장로)
- ③ 행진부대장(부지역장권사, 협력구역장
집사)
- ④ 행진전령(각 교구 간사)
- ⑤ 행진 반장(구역장집사 및 권장)
- ⑥ 행진대원(천교인)

행동지침

오직 앞을만,
오직 뒤편만,
오직 은혜만의 행동 원리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돌리기 위하여

- (1) 새벽기도회 총동원 출석
- (2) 시온성대행진 기도제목을 따라서 1일
3회 이상 합심기도
- (3) 시온성대행진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
(참가 점검표에 확인한다)
- (4) 각 행진대별로 충현 북한지교회 설립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

충진군의 날

- 가족 총동원 운동 전개
- 1세대, 1명 초청운동 전개
- 반별(구역별) 잃은양 찾기 운동 전개
(장기결석자, 쉬고있는 자)

사랑의 차 동승운동

행진반장은 차량을 앞선하여 편의제공하며
만차로 운행하게 한다. 반(구역) 성도 중 차량
이 없을 때는 영업용 택시를 협의하여 준비하
여 운행하게 한다.

봉사참모부 세부지침

▲ 충현차와 충현 조찬 마련(담당: 권명옥
집사)

- ① 충현차(생수 및 생강차): 새벽기도후 성도
간에 교제를 위함.
- ② 충현조찬: 새벽기도후 직장 출근자를
위해서 아침제공.

▲ 강사 접대

- ① 6. 6-6. 20(15일간)
주강사 이종윤 목사 접대
- ② 저녁 특별집회 강사접대
(1) 6월 12일(대구제일교회) 이성근 목사
(2) 6월 13일(강변교회) 김명복 목사
(3) 6월 14일(소방교회) 이현빈 장로

▲ 숙소마련

- 원거리에서 새벽기도회 참석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날 교회에서 유숙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함.
- 남자숙소: 유치부실(소식관 205호)
탈방: 권명옥 집사
- 여자숙소: 영아부실(아래층)
탈방: 문명애권사
- 탁아부실(배달대행함)

▲ 차량을 원활히 소통키 위해 차량안내원
배치(약 35명)

탈방: 김태영 집사

▲ 택시 운전기사 겸 전도지 배포

- ① 장소: 교회 앞 도로주, 정차장
- ② 15일 × 60대 × 100 = 900,000
- ③ 배포 담당

새가정부 여름계절학교

주제 그리스도인 가정의 경건생활

강사 윤용규 목사

< 주제별 그룹토의 발표, 교제, 찬양 >

일시/ 6월 6일 오전9시 30분 출발(교회)

장소/ 충현기도원

☆ 새가정부회원 가정이 예수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계도로 성원바랍니다.

교회
학교
새가정부

지상강단

* 김학진 목사님의 지상강단이 편집실수로 인해 제대로 문장이 연결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필자인 김목사님께 사과를 드립니다.(편집국장)

본문 / 뱀전 4:7~11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과학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살기 좋은 시대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식은 기근과 지진, 전쟁의 슬픈 현실입니다. 더욱이 영적으로는 어둠과 캄캄한 밤으로 불안하고 위태하며 유혹의 함정이 가득한 혼란한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대를 만물의 마지막, 즉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라는 의미 속에는 한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개인의 종말과 역사가 끝이 나는 온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왔다는 뜻이고 최종 심판이 가까왔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가까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말세에 처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생각과 태도를 정상화하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처음 났을 때보다 가까왔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내게 주신 시간의 남은 때를 잘 선용하여 매일 매일의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원수 마귀의 틈바구니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혼이 잠들게 되며 마귀에게 삼키게 되고 말 것입니다(뱀전 5:8).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2.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말세에 해야 할 일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사랑해야 서로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도록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로서 영혼이 강건하여지는 영적 호흡이며 영적 대화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 33:3)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연약으로만 알고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적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 여김이며 천국 일을 자기의 의지와 노력, 지식과 지혜로 좌우하려는 교만입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까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3.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중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기도인 것처럼 사람에게 대한 태도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세계명이며 최대의 계명입니다.

말세의 특징적 현상 중의 하나가 남을 사랑치 않으며 무관심하며 방관하고 자기만을 사랑하여 오히려 적대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는 사랑이 식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미움이 싹트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꿈을 가진 동시대



하는 것이므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으며 힘들어 하거나 짜증내는 일도 없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며 자기자신은 물론 남도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서로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올바른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가져오고 이 민족과 세계에 소망과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김학진(목사, 2교구, 예배위원회, 장년1부지도)

얼마전 외국에서 온 손님과 함께 차를 운전하여 복잡한 시내를 통과하는 중에 질서를 존중하는 그들에게 길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광경을 보여주게 되면서 무척 곤혹스러움을 당한 일이 있었다. 교통규칙을 지키는 일은 아예 제쳐두고 서로 조금의 양보도 없이 파고들어 완전히 뒤엉켜 한참이나 움쭉달싯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였다가 겨우 빠져 나온 후에 그 외국인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한국은 중국이나 인도 보다는 낫다는 얘기를

장로칼럼 원칙과 양보



노문한 (장로·소년부 부장)

“너그럽게 양보하여 여유있는 신앙생활인 되어야”

들으면서 쓴 웃음을 지은 일이 지금도 나쁜 기억으로 생생하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일에는 등한하면서 아니 무시하기까지 하면서 조금 양보하면 피차 웃음을 잃지 않고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는 일에는 핏대를 올려가면서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극도로 이기적인 삶 가운데 빠져들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내에서도 꼭 지켜져야 할 본질적인 문제(진리에 관한 문제), 원칙의 문제는 간과된 채 어떤 절차적인 문제, 좀 양보해도 될 문제들을 가지고 피차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펼 때가 종종 있음을 보면서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는지, 모든 것을 자기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재계 편리한대로만 생각하고

주장하는지 하는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러할진대 어떻게 세상사람들을 보고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좀 양보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힘이 들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규칙(원칙)을 지킬 것은 지키고 양보할 일은 양보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는 분, 우리의 선한 손해를 채워 주실 분이 계시지 않는가?

전도(顛倒)된 삶의 가치를 바로 잡아 원칙(진리, 본질적인 문제)을 지키는 일에는 철두철미 결코 양보하지 말고 부수적인 일, 양보해도 될 일들에는 너그럽게 양보하는 여유있는 마음을 가진 신앙 생활인이 되기에 힘쓰자. ✽

교회당 주변을 푸르게 헌수헌금 명단

교회당 주변을 푸르게 하기 위한 헌수헌금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였다.

헌수 헌금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홍기환, 석영식, 지아연, 최영창, 이용점, 김택선, 구현숙, 황숙영, 김종남, 김양수, 조순희, 채영애, 이순희, 박희영, 여옥기, 이남수, 이승찬, 윤형순, 서영남, 김숙자, 양윤경, 윤수원, 한춘실, 임순배, 김영희, 김영옥, 김기수, 유승만, 박진명, 이흥구, 이두란, 오영숙, 김학전, 김용숙, 김석영, 이을남, 허순자, 이명하, 정운애, 우남순, 이신일, 윤병조, 윤여엘, 박진엽, 김관형, 김명자, 김효진, 김인순, 무명10명.

가정의 달 축복기도 장년1부 지난주간 가져

교회학교 장년1부(부장/ 김재명장로)는 지난 5월28일(주일) 12시30분부터 소석관 407호에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와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축제를 가졌다.

이날 200여 명이 참석한 가정의 달 행사에서는 지도교역자인 김학진목사가 참석한 어린이들 전부에게 이름을 불러주며 축복기도의 시간도 가졌다.

장년1부는 연령별 30세부터 39세까지가



대상이며, 매주일 12시30분부터 소석관 407호에서 집회는 갖는데 해당되는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온 부모는 어린이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온성대행진 특별집회

장년1부 특강

일시/ 1989년 6월 11일(주일) 12시 30분

장소/ 소석관 407호

강의제목/ 평양 봉수교회를 다녀와서

강 사/ 민종식 장로(L.A. 세계선교교회)

교회학교 장년1부

부장 장로 김 재 명



“진군의 나팔소리”

—시온성대행진에 붙여—

이부성집사(교구 3지역 협력구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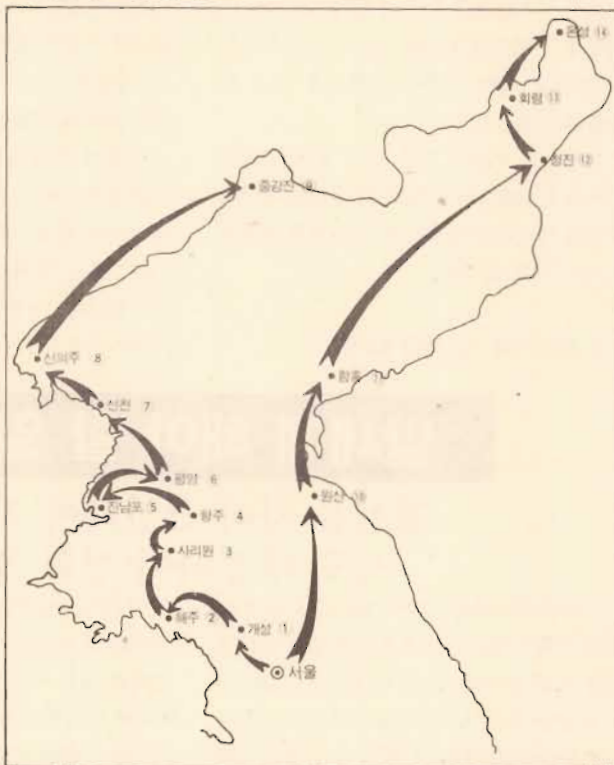
최악으로 몰려들고 철쭉같은 어둠속을 가르며 한줄기의 빛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긴 동면속에서 움츠리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고 있다. 시온성대행진 출정을 위한 진군의 나팔소리가 가까이 들려오고 있다. 메말라가는 우리 영혼을 재충전시켜 오직 말씀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의 행동원리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충현의 성도들은 홀연히 일어나 복음의 횃불을 밝게 켜고 북한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힘찬 행진을 하기 위한 출정명령이 숨가쁘게 하달되고 있다.

그동안 홍해작전과 여러고작전을 통해 영적 각성과 예수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한 우리 개성 행진대원들은 이번 시온성대행진을 통해 교회개신과 민족복음화의 기수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하며 힘차게 일어서고 있다.

최대동원, 적극적인 참여로 40여년동안 굳게 닫혔던 3·8선의 벽을 우리 개성행진대가 복음의 선봉대가 되어 제일 먼저 입성한다는 각오로 행진대장을 중심으로 전 행진대원이 일사불란한 탐욕으로 6월 6일 새벽 5시 행진명령만을 기다리며 총 동원태세에 돌입하고 있다. 이곳에서 불과 자동차로 2시간 남짓 가면 도달할 수 있는 두고온 산하, 잃어버린 땅 개성을 복음으로 함락하여 허물어진 교회를 우리가 먼저 재건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 복음전도하며, 그 여세를 모아 북한전역을 복음화시키고 백두산 정상에 기도원을 지어 복음화된 북한의 신자들과 함께 승리의 감사 부흥성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 충현가족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시온성 대행진



여전도회 특강

본교회 여전도회협의회가 주관하는 5월 특강이 지난 19일 주전예교수(장신대)를 강사로 개최되었다.

이날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으로, 성경에 나타난 인물의 자녀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장성하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는 자녀교육에 모든 여성도가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주교수는 예수를 닮은 생활을 전제로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을 수 있게 키워야 하며, 교육은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가서 돈 많이 벌이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자녀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 온유, 정직, 희생정신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역예배를 위한

충현다락방

1989년 6월 9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23과 기도생활의 갱신

성경: 마태 26:36-46

요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 26:42 下).

찬송: 482, 483장

시온성 대행진을 맞이하여 먼저 우리의 기도생활이 갱신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생활이 갱신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

성공적인 기도는 주의 뜻을 순복하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다. 겹세마네 동산에서 젊어지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하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므로 때로는 사악한 죄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때도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고 거스르는 자들의 기도를 매번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주의 뜻을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함은 우리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요일 5:14, 15).

2.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

구체적이 아닌 막연한 기도는 형식적이고 진지하지 못한 기도이다. 아무 부담도 없고 그 마음에 긴박감이 없는 기도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나 확신없이 모호한 내용만 늘어 놓을 뿐이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려면 무성의하며 형식적인 기도제목을 제하고 진정으로 원하며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제목으로 삼으라. 무엇보다도 성경을 연구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의 제목을 삼으라.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알곡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는 별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심령과 제목을 깨닫게 되도록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롬 8:26-27). 죄를 깨닫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

3. 믿음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 나아 가는데 첫째 요건이 바로 믿음이다. 아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히 11:6).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수많은 명령과 권고의 말씀을 담고 있다. 따라서 불신앙은 명백한 죄가 된다(롬 14:23).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하셨다. 믿음은 히브리서 11:1에 의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하였다. 고로 믿음을 가진 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지며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크게 성장하는 것이다.

■ 함께 생각합시다.

1. 애써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약 4:3)
2. 나의 기도내용이 구체적인 것인가? 구체적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믿음과 확신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일 5:14, 15)

■ 공동 기도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무기력하고 나태한 기도생활이 갱신되길 원합니다. 헛된 욕심따라 구하지 말고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여 구체적인 소원으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의심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한 믿음과 헌신으로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